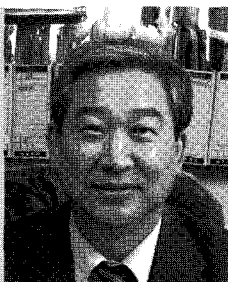


특수 기능성 필름 생산 박차

끊임없는 연구개발, 고객 기대 부응



용성우
영인화학 대표

인터넷의 보급과 더불어 급변하는 사회속에서 '디지털'이 시대의 화두로 등장하면서 첨단 소재 및 신소재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경제'는 국내 포장업계에도 침투, 주먹구구식 경영에 급급했던 과거에서 벗어나 소비자 요구에 따라 현재 포장산업 역시 디지털화 되고 있다.

"넓은 분야를 깊이 있고 폭넓게 파악할 때 비로소 좋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디지털 포장문화의 실현이라는 포부'를 갖고 R&D 분야에 주력하고 있는 영인화학(대표 용성우)을 찾았다.

응용화학과를 전공한 용성우 사장은 대학졸업 후, SKC에서 필름 생산과 영업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이후 국내 최초의 스탬핑 포일(Stamping Foil)과 헤어



▲ 영인화학이 출시하고 있는 필름류



▲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영인화학

라인필름(Hair-Line Film)을 개발했으며 방조용 필름에 대해 특허를 획득, SKC에 기증하는 등 필름사업 영역에 있어 두각을 나타내게 된다.

1987년 경기도 안산에 설립된 영인화학은 창립 이후, 증착관계, 특수코팅, 점착 테이프, 잉크젯(inkjet) 소재, 잉크젯 잉크(inkjet ink), 헤어라인 필름, 합성지(유포필름 대응) 등 특수 기능성 필름을 생산, 17년간 업계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영인화학은 1992년에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것을 시작으로 95년 수출유망기업

선정되는 등 대외적으로도 업체의 입지를 공인받으며 증착설비를 가동하고 점착제 제품생산을 시작하게 됐다.

97년에는 inkjet media의 국산화에 성공했으며 98년 중국, 대만, 일본 등 해외 에이전트(Agent)를 설립하면서 수출에 박차를 가하는 등 이러한 해외 에이전트 설립은 현재 매출의 70% 이상을 해외수출을 통해 성과를 거두는 등 해외시장에서 기술력을 특히 인정받고 있는 결과를 낳았다.

지난 2002년 영인화학은 국내 최대폭인 2,300mm의

광폭 코팅기를 증설, 설비 보안을 통해 고품질·고성능의 독창적 필름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됐으며 지난 해에는 부식법을 이용, 포장용 알루미늄 부분증착 필름에 대해 특허를 출원했다.

용성우 사장은 “창립 이후, Film을 소재로 하는 모든 특수 기능성 Film에 깊은 관심을 갖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 왔다”고 밝히면서 “항상 연구하고 새로운 제품을 개발함과 동시에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만들고자 시행착오를 반복하며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Young In

여느 기업이나, 회사를 대표하는 '사장실'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것이 당연할 터.

영인화학 용성우 사장실은 여느 공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온갖 종류의 필름(Film)들로 가득 차 있다.

그렇다고 연구개발에 주력한 모든 제품들이 항상 성공만을 거둘 수는 없는 일.

용성우 사장은 새롭게 개발

한 아이디어 신소재 중 상용화되지 못한 신소재들도 단순하게 폐기처분하지 않는다.

상용화되지 못한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파악, 실험의 전과정을 영인화학의 노하우로 다시 피드백 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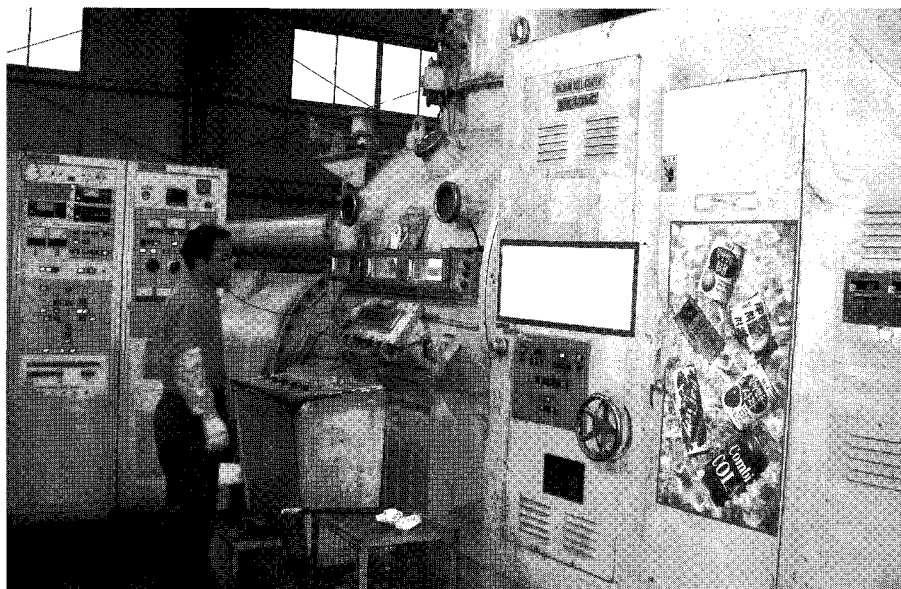
최근 대구 지하철 참사사건을 바라보며 누구보다 비통함을 감출 수 없었던 용성우 사장은 안전대책에 있어서 전기

가 없어도 어둠속에서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소재 개발에 착수, 축광필름을 개발해 냈다.

영인화학의 축광필름은 빛의 밝기를 환하게 만들기 위해 백릿효과를 더욱 효율적으로 낼 수 있는 PET 필름이나 합성지를 이용, 제작했으며 부차적으로 용이할 수 있도록 뒷면에 점착처리했다.



▲ 영인화학 공장전경



◀ 특수화된 제품개발 및 생산에 주력하고 있는 작업현장

현재 축광필름은 업계 호평으로 광고 업계를 비롯, 공공장소 등지에서 상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선을 다하는 기업, 연구 발전하는 기업, 세계 일류화 기업이라는 경영 방침을 실천하기 위해 연구하고 공부하는 일이 가장 익숙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히는 용 사장의 이러한 노력이 바로 영인화학 발전의 밑거름인 것.

용성우 사장은 영인화학은 ‘노력하는 회사’일 뿐이라고 밝힌다.

그는 “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항상 새로운 소재 분야에

관심을 갖고 꾸준한 연구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최고를 꿈꾸며, 최고의 품질과, 세계적인 제품을 생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우연하게 접한 잉크젯 관련 전시회 참관을 계기로 소재산업에 입문, 올해 한국디지털프린팅협의회 초대 회장직을 수행하게 된 용성우 사장은 앞으로 독창적 특수 필름을 지속적으로 개발함과 동시에 올바른 실사 시장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고객의 요구가 계속되는 한 영인의 발전은 계속될 것입니

다. 오랜 시간 거래를 해 온 고객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서라도 빠르게 변하는 실사출력기 시장의 트렌드를 파악하고 영인의 노하우로 시장에서 우위를 자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입니다.”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업계가 어려움을 겪은 지난 한해를 난고의 시기가 아닌 신제품 개발에 주력,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한 영인화학,

끊임없는 연구, 개발 아이템들의 활발한 상용화를 통해 영인화학이 포장업계에 일익을 담당하길 기대해 본다. [K]

박초혜 기자